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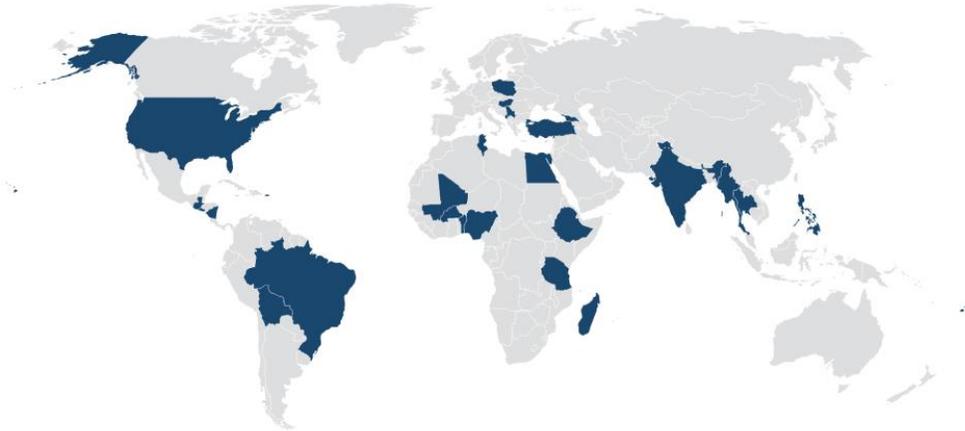
# 포퓰리즘, 가짜뉴스와 한국 민주주의

강원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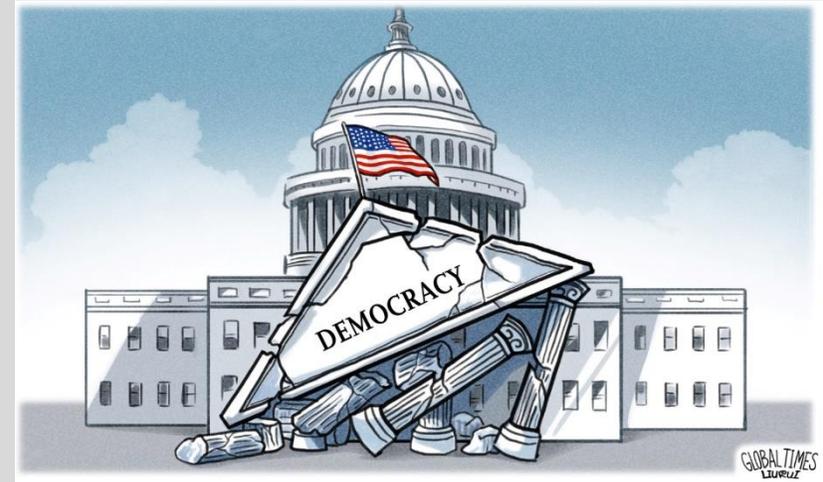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30여 년 전 민주화의 제 3의 물결  
 Liberal democracy is “final form of human government”  
 (Francis Fukuyama)
- 낙관적 기대감과 달리 민주주의 퇴행의 조짐

Figure 1. Democratic Backsliders Since 2005



- |              |            |             |               |
|--------------|------------|-------------|---------------|
| Benin        | Ethiopia   | Mali        | Serbia        |
| Bolivia      | Fiji       | Montenegro  | Tanzania      |
| Brazil       | Georgia    | Myanmar     | Thailand      |
| Burkina Faso | Guatemala  | Nicaragua   | Tunisia       |
| Comoros      | Hungary    | Nigeria     | Turkey        |
| El Salvador  | India      | Philippines | United States |
| Egypt        | Madagascar | Poland      |               |



- 포퓰리즘 정치의 확산
- 2016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 현상
- 2017 프랑스 대선 Front National 마리 르펜 결선 투표
- 이탈리아 오성운동 , 북부동맹 ‘포퓰리스트 연정’
-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12.6% (94석)
- 2017년 오스트리아 선거 - 극우정당 연정 참여
- 2017년 체코 포퓰리즘 정당 ANO 승리
- 스페인 PODEMOS, Ciudadanos, VOX 등
- 스웨덴 2019 총선 스웨덴민주당 3당으로 약진
- 핀란드 2019 총선 핀란드당 제 2 당 ...





- 1) 인민(people) 대 엘리트
  - 고결하고 순수한 인민
  -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엘리트
  - 엘리트에 대한 불신
    - 반자본, 반관료, 반사법부, 반의회
    -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다
    - 무능하다, 부패하다



- 2)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적 참여의 강조
  - 기존 정당, 엘리트는 기득권 대표
  - 인민의 직접 참여가 중요
- 3) 분열의 정치, 배제의 정치
  - ‘우리’와 ‘그들’
  - 민족주의, 애국주의, 인종주의, 지역주의
  - A big beautiful wall - Trump

#### 4) 다원주의의 부정

- 인민의 집단적 의지가 강조

#### 5) 마음 속 이상향 (heartland)에 대한 강조

- 현재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상상된 과거의 강조
- *Make America Great Again*
- 백인들의 유럽



#### 6)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는 지도자에 대한 선호

#### 7) 감성적 동원

- 민족주의, 인종주의, 애국주의, 지역주의 ...

- 한국도 포퓰리즘 정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 논의의 극단화, 양극화

- Populist 정치인, 정당

- 적군과 아군, 선과 악

- 적폐청산

- 상대방은 적폐 vs 우리는 선, 정당

- ‘가짜 뉴스’ (disinformation)

- 왜곡된 정보, 과장 정보에 편향

- 듣고 싶은 정보, 알고 싶은 정보만 수용

- ‘끼리끼리’ (like-minded) 소통

- 정치권과 시민 간 무매개적 접촉, 직접적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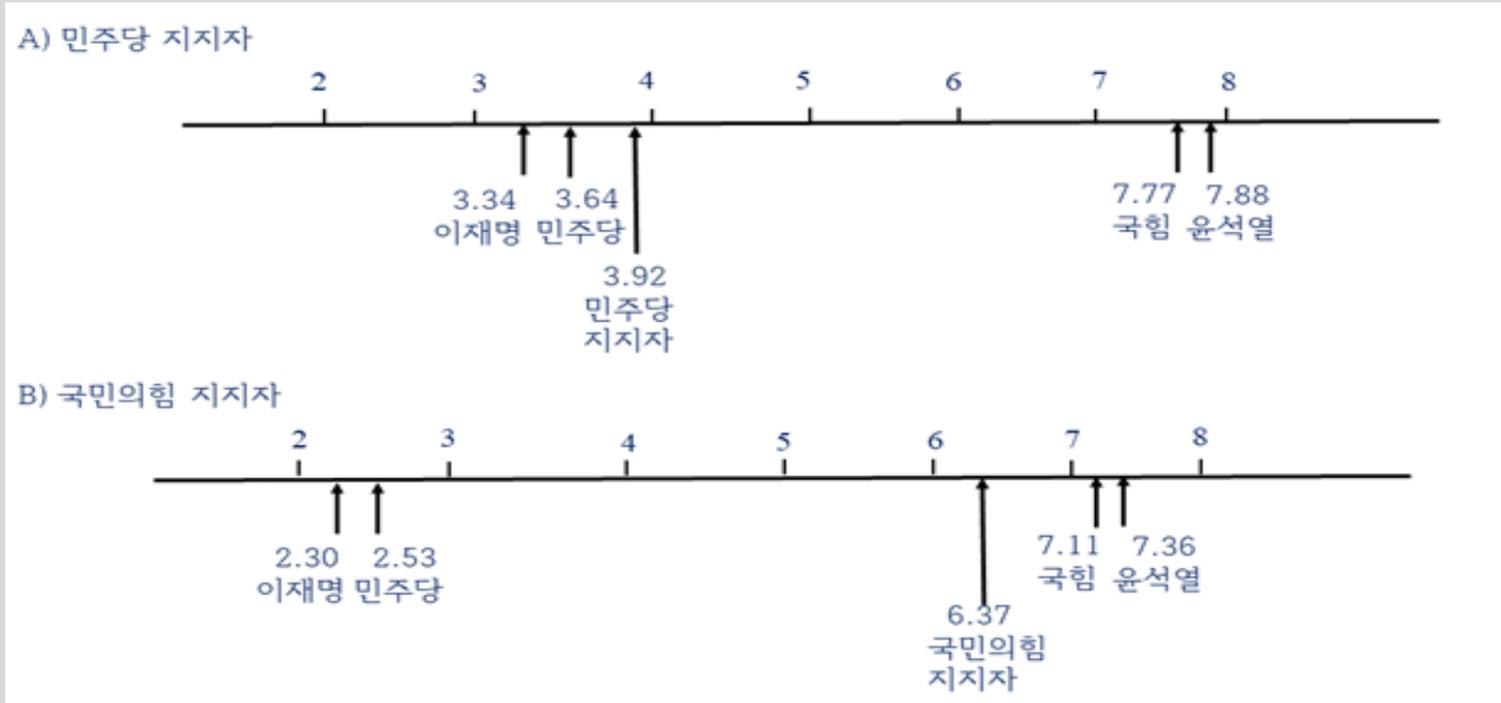
- 의회, 언론 등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회, 무시



- 포퓰리즘이나 정치 양극화
  - 정치적 공급자, 즉 정치인이나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소비자, 즉 일반 시민의 태도에도 주목해야 한다.
- 지지 정당별 정당 및 정치인 선호도

선호도/ 지지정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국정평가	문재인 국정평가
더불어민주당	6.24	1.67	1.23	6.25	6.95	1.25	6.68
국민의힘	1.79	6.45	6.44	1.45	1.75	6.52	2.67
기타 정당	4.17	2.71	2.70	3.85	4.73	2.53	4.88
없음	3.49	3.61	3.34	3.12	3.91	3.26	3.91
ANOVA	F=313.7 p<.00	F=354.7 p<.00	F=341.1 p<.00	F=297.3 p<.00	F=334.6 p<.00	F=386.0 p<.00	F=203.7 p<.00

- 지지하는 정파에 따라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림



-이념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  
- 합의 도출 어려움

### 민주당 지지자:

- 민주당과 이념 거리 0.28 (국민의힘 3.85); 이재명과 이념 거리 0.58 (윤석열 3.96)
-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념 거리 4.13; 이재명과 윤석열 이념 거리 4.54

### 국민의힘 지지자

- 국민의힘과 이념 거리 0.74 (민주당 3.84); 윤석열과 이념 거리 0.99, (이재명 4.07)
-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념 거리 4.58; 윤석열과 이재명 이념 거리 5.06

범주	정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t-검정
대북-안보	중국보다 미국 관계 강화	2.66	3.31	-12.7
	한일 관계 강화	2.17	3.09	-16.5
	남북 화해 협력 추구	1.87	2.62	-13.7
시장-국가	고소득자 종과세	1.67	2.16	-9.0
	노조 기업 경영 참여	2.14	2.91	-12.9
	공기업 민영화	1.91	2.48	-9.2
자유-질서	시위 집회 규제 필요	2.32	3.26	-15.9
	병역 대체복무제 허용	2.86	3.08	-3.6
	학교 체벌 금지	2.59	2.82	-3.8

- 9개 정책 영역 모두에서 정파 간 입장의 차이
- 이념적 입장의 차이?

지지정당	진보	중도	보수	합 (n)
더불어민주당	54.3	34.2	11.5	100.0(409)
국민의힘	8.3	29.3	62.4	100.0(372)

- 정당 지지와 이념적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정파적 지지와 이념적 태도가 일정한 관련성을 갖지만, 정파적 지지와 이념적 태도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9개 정책 모두에 대한 매우 일관되고 분명한 정파적 차별성은 이념적 입장의 반영이기보다, 정파적 영향에 의한 설득(persuasion), 혹은 투사(projection) 하는 정파적 합리화(partisan rationalization)의 결과로 보임.
  - 실제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정책적 입장의 차이보다, 정파 요인이 개입하면서 그 차이를 크게 확대시켰다.
- 미국의 양극화 문화 전쟁(culture war), 우리는 정파적 요인이 강함.

- 포퓰리즘 태도 측정 (Akkerman et al. 2014)

1. 국회의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의 뜻을 따라야 한다.

2.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내려야 한다.

3. 나는 전문 정치인보다 한 사람의 시민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대중 직접 참여, 대의제 불신

4. 엘리트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일반 국민들 간 입장의 차이보다 크다.

5. 정치인들은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으로 마무리한다.

6. 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은 말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별로 없다.

→ 반엘리트

7. 정치란 결국 선과 악의 대결이다.

8. 사람들이 정치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칙을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선악, 대결의 정치, 반다원주의

	평균	표준편차
1. 국회의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의 뜻을 따라야 한다.	4.11	.89
2.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내려야 한다.	3.96	.96
3. 나는 전문 정치인보다 한 사람의 시민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3.30	.99
4. 엘리트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일반 국민들 간의 입장의 차이보다 크다.	3.67	.90
5. 정치인들은 그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으로 마무리한다.	4.14	.95
6. 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은 말은 많지만 실제 행동은 별로 없다.	4.21	.87
7. 정치는 결국 선과 악의 대결이다.	2.85	1.18
8. 사람들이 정치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칙을 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46	.99
대중 직접 주도	3.79	.74
반엘리트	4.01	.71
선악, 대결 정치	3.16	.90
• 포퓰리즘 태도: 1- 전혀 아니다, 2- 대체로 아니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포퓰리즘 전체 평균	3.71	.58

-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 반엘리트적 성향 강함
- 반엘리트 > 대중 직접 주도 > 선악, 대결의 정치 순

포퓰리즘 태도	지지 정당 여부	평균	t 검정
8개 항목 총합	있다	3.741	2.82 p<.01
	없다	3.638	
대중 직접 주도	있다	3.825	2.85 p<.01
	없다	3.692	
반엘리트	있다	4.021	1.11 p=.27
	없다	3.971	
선악, 대결 정치	있다	3.197	2.45 p<.05
	없다	3.059	

- 지지 정당이 있는 경우 포퓰리즘에 수용적인 태도
- 포퓰리즘의 태도가 기존 정당과 관련되어 있음.
- 반엘리트 범주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정파적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정서가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

포퓰리즘 태도	지지 정당	평균	t 검정
8개 항목 총합	더불어민주당	3.787	2.48 p<.05
	국민의힘	3.686	
대중 직접 주도	더불어민주당	3.897	3.12 p<.01
	국민의힘	3.731	
반엘리트	더불어민주당	4.092	3.05 p<.01
	국민의힘	3.941	
선악, 대결 정치	더불어민주당	3.17	-1.11 p=.27
	국민의힘	3.24	

- 대체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다 강한 포퓰리즘 태도
- 대중 직접 주도나 반엘리트 성향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보다 강한 성향
- 선악의 정치, 대결 정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에서 근소하게 높음.

범주	변수	대중 주도	반엘리트	선악, 대결	포퓰리즘 합
정파	더불어민주당 호오도				
	국민의힘 호오도				
	민주당 - 국민의힘   호오도			.039+	
	지지 정당 유무	.158**		-.171+	
정치인 호오도	윤석열 호오도				
	이재명 호오도				
	문재인 호오도				
	윤석열 - 이재명   호오도				
	윤석열 - 문재인   호오도		.030+		
이념	이념 극화				
	주관 이념	-.029+		.050**	
정치 만족도, 효능감	한국 민주주의 만족도		-.005**		
	정부 하는 일 말해도 소용없다			-.063+	-0.39+
	공직자 국민 말 안 듣는다	-.141*	-.190*	-.114*	-.153*
제도 신뢰	국회	-.053*	-.043*		-.039*
	대통령		-.039**	.055**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032+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 지식			-.080**	
	정치 관심	-.081*			
	성별	-.122**			
	나이	.009*	.003+	.006**	.006*
	학력			-.071**	
R <sup>2</sup>		.183	.261	.117	.223

- 가장 주목할 점은 정치제도 신뢰
- 정치 만족감, 효능감 및 국회에 대한 낮은 신뢰
- 정치제도가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치적 실망과 불만
- 국회 등 대의제 기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부나 공직자들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치적 소외감이 포퓰리즘에 수용적 태도로 이끈다.

## ▶ 가짜뉴스

###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

-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졌다.
- 현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처리수)에 대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 한동훈 법무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만 ‘봐주기 수사’를 해서 발생한 것이다.

### ○ 국민의힘 지지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

- 한국전력의 적자가 대단히 크게 발생한 것은 탈원전 정책 탓이다
-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 조작 등 선거 부정이 있었다.
- 북한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해킹으로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 ‘검수완박(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지구대 인력이 부족해졌다.

## 지지 정당별 가짜뉴스 신뢰 정도 비교

	지지 정당	평균	t 검정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관심 이슈	더불어민주당	3.229	28.89 p<.00
	국민의힘	1.940	
국민의힘 지지자 관심 이슈	더불어민주당	2.172	-14.09 p<.00
	국민의힘	2.771	

1-선혀 사실이 아니다; 2-내제로 사실이 아닐 것 같다; 3-내제로 사실일 것 같다; 4-선적으로 사실이다.

- 가짜뉴스에 대한 소비가 정파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범주	변수	민주 지지자 관심	국힘 지지자 관심	8개 종합
포퓰리즘	대중 직접 주도	.399*		
	반엘리트			
	선악, 대결의 정치	.397*	.540*	.469*
정치 선호도	민주당 - 국민의힘			
	윤석열 - 이재명			
	윤석열 - 문재인		-.083+	
이념	주관이념	-.234*	.152*	
	이념극화	.158**		.240*
갈등 인식	영남 대 호남			
	여당 대 야당	.472*		.551**
	보수 대 진보	-.421**		-.543**
	부자 대 빈자	-.277*		-.251+
제도 신뢰	국회	.410*	-.213*	.197*
	대통령	-.609*	.385*	-.224*
	행정부		.182**	.236**
	헌법재판소		-.147**	-.216**
	법원	-.137**		-.217**
사회경제적 배경	정치 관심			
	정치 지식			
	나이	-.039*	-.013**	-.052*
	성별			.528**
	학력			
계층	소득			
	자산			
	주관계층		-.229**	-.373**
출신지	충청			
	전라	.814*	-.650**	
	TK			

- 선악, 대결의 정치: ‘아군과 적’의 구분, 배제, 증오의 분열의 정치가 가짜뉴스 소비에 영향
-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정파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결과
- 주목할 곳 사법부: 법원, 헌법재판소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짐.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가짜뉴스에 수용적
- 이념 극단적일수록

- 결론

1. 정파적 양극화 매우 심각함. 정당 지지자들이 인식하는 정당 간 이념적 거리감이 타협을 어렵게 할 정도로 멀었다.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하고 일관된 정파적 태도가 확인됨. 그러나 정당에 의한 설득, 투사와 같은 정치적 합리화의 결과로 보임. 즉 정당이 정파적 양극화를 동원
2. 포퓰리즘 태도는 정파성과 관련. 그러나 정치제도가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반응성에 대한 불만이 포퓰리즘에 수용적으로 이끔. 국회나 공직자의 무관심이나 무대응이 포퓰리즘 태도와 연관 (반엘리트적 속성)
3. 포퓰리즘의 ‘선악, 대결 정치’적 속성이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 배제, 증오, 분열의 정치가 가짜뉴스 소비에 영향.
4. 가짜뉴스 소비는 정치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와 관련, 대통령과 국회는 정파적으로 판단,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가짜뉴스의 수용성을 높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